근심에 재빨리 응답하라

(요한복음 14:1~4)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근심에 재빨리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근심에 재빨리 응답하라'
근심은 마음속이 시끄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근심을 끄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근심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은 한 마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화벨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던 일에 손을 뗄 수가 없거나 혹은 전화기가 멀리 있어서 응답이 늦거나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전화벨 소리를 오랫동안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화 벨소리에 마음을 머물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에는 빨리 수화기를 들고 응답하면 됩니다. 전화벨 소리는 그 자체를 붙잡고 씨름할 대상이 아니라 빨리 응답하라는 재촉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시끄럽다면 빨리 전화를 받으면 되지만 전화벨 소리를 어떻게 끌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목록 중의 하나가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심하지 않는 삶이고 근심하

지 않아도 완전히 괜찮은 삶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문제의 해결로써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더니 돈 문제를 해결해주심으로 근심거리가 없어지게 되리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 본문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근심거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길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드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근심이 생기면 그 근심하게 하는 원인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머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돈 근심이 생기면 돈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이 머물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택배 아저씨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보내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근심거리는 붙잡고 씨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가기 위해 손 놓고 등 돌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마음이 머물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거리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거리로부터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길이 되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근심거리를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근심거리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라 하시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기에 아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 의미에서 근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앞서 근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전화벨 소리이기에 응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르심과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타라세스도(ταρασσέσθω)입니다. ‘타라쏘(ταράσσω)’라

는 동사에서 나온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소동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선동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한 마디로 속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12장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으로 번역된 부분이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또 13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을 때에도 '심령이 괴로워'라고 근심하다의 타라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셨으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다소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생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근심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맥락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격리되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죄악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밀착해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셔야만 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저주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저주의 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의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근심의 근원적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상태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것이 근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은 있어야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와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루 장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근심이 생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원하는 기준으로부터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자 근심이 생깁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상태로부터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근심의 내용은 거리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근심의 원인은 무엇이고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장 13장 36~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장에서의 대화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37절에서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데 왜 갈 수 없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장담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께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함께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시려는 목적지가 이 땅 위에 있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래를 향해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가고자 하셨다면 베드로는 주저 없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곳은 이 땅에 있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이 길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까지 오르심으로써 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목적지는 이 땅 위에 있는 미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향하고 계셨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목숨까지 버리며 함께 했을 것입니다. 혹은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으시고자 정치적 행보를 보이셨다면 그 길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했을 것이고, 기적 등의 능력을 통해서 대중의 힘을 규합하여 혁명을 일으키려 하셨어도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길은 이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반복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심의 원인은 거리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조국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되는 지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던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는 예고를 반복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제자들의 근심은 이 세상적인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 이 땅에 있는 한 예수님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미래의 지점을 향해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시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로 수직상승하셨습니다. 아직 성령의 부르심을 받기 전 육신에 묶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수직상승의 길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고 싶어 했던 길은 현시대의 교인들도 똑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목적지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 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근심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 일로 근심이 생겼다면 그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호로 보내시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이 땅위에서 그렇게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여도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근심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목적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지에 가겠다고 고생하지 말고 근심이라는 신호가 오면 바로 하나님의 전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목적지로부터 삶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화를 거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봐야 소용없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목적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건강한 상태에 도달해봐야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건강으로는 결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원하는 재정적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더 큰 근심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결혼에 대한 근심, 직장에 대한 근심을 비롯한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모든 대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화를 걸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근심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아야 하듯

이 하나님의 전화벨 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처소로 삼아야 할 곳은 돈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에 머물러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머물러 있을 장소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벨을 멈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전화를 받듯이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그 근심거리가 호텔이라도 되는 듯이 마음을 머물게 해서는 결코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벨소리입니다. 벨이 울리면 빨리 응답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벨소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칠천팔기의 도전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해 칠전팔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울리는 하나님의 벨소리를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했을 때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씹는다고 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벨소리입니다.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근심이라는 벨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거리에 마음이 머무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벨소리를 씹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문자를 씹고서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심거리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근심거리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들은 무조건 방치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바른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심거리에 매여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마음이 기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어야만 근심이 사라진다면 세상에 지는 것이고 세상의 종노릇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돈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돈에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돈에 얽매인 노예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으로 근심하다가 회복되어서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되었어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아닙니다. 마음이 여전히 건강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통한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온전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노예가 밤에는 잠을 자지만 새벽이 되면 다시 일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심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 묶여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따르며 해결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도로서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근심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을 돈을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마음을 보내고 머무는 자들이 선민이고 성도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빌립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9~10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근심거리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면 세상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며 해나가시리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의 일들은 근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근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곧 죄악입니다.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이 머무는 동안 내가 몸으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갑으로 끼시고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대해 근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평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근심은 시시각각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자체를 굳이 잘못된 일이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근심을 그냥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근심을 하나님의 벨소리로

여기고 빨리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전화기를 들고 응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에서 근심거리가 생길 때에 결코 근심거리를 해결함으로써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화벨 소리에 사로잡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근심이 생길 때에 오직 십자가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연결의 시작점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근심거리를 등지고 떠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음이 근심거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 근심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는 거할 처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시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근심거리에 마음이 머물러 씨름하려 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듯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서 아버지께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삶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전화벨 소리가 근심의 형태로 내 마음에 울릴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수화기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 가서 머물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근심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가고 이끌려져가는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